

광주동부소방서 간병협회에 소화기 전달



광주동부소방서(서장 배성근) 소속 학운 119 안전센터(센터장 강종구)는 최근 관내 시설인 사립의 간병여성 협회를 방문, 소화기를 전달하고 소방시설 점검을 했다.

농림수산업자 신보 전남센터, 저소득층에 연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전남지역보증센터(센터장 안정수)는 최근 광주시 북구 저소득층 10가구에 연탄 2천장과 쌀 10포를 전달했다.

호남대 전국 최초 통합뉴스센터 개소

호남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대학 미디어 매체를 통합해 주목을 받고 있다.

호남대는 24일 오후 4시 광산캠퍼스 상하관 통합뉴스센터와 국제회의실에서 통합뉴스센터 개소식 및 '2009 미디어축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내대학 최초로 설립된 호남대 통합 뉴스센터(센터장 정철)는 호남대신문사, 호남대방송사, 호남헤럴드(영자신문사), 호남대학중문재간(중국어신문사) 등 대학 내 4대 미디어 매체를 통합해, 발행 및 송출하는 형태로 운용된다.

학생기자와 PD, 아나운서, 카메라 기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통합뉴스센터는 지난 9월부터 교내 IP-TV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내 TV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미디어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체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중견배우 차화연 결혼 21년만에 이혼

중견배우 차화연(사진)이 결혼 21년 만인 지난 3월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차화연 소속사인 케이준 엔터테인먼트는 "차씨가 지난 3월 결혼 21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미성년자인 둘째 딸과 막내아들 의 양육권은 차화연씨가 갖고,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협의를 했으며, 위자료 문제도 원만하게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차화연은 1978년 연기자로 데뷔해 1987년 드라마 '사랑과 애정'으로 스타덤에 올랐다가 1988년 10살 연상인 사업가 최모씨와 결혼하면서 연예계를 은퇴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SBS TV 일일극 '애자 언니 민자'로 복귀했으며, 현재는 SBS TV '천사의 유혹'에 출연하는 한편, 최근에 개봉한 영화 '백야행'에서는 주인공 요한(고수)의 어머니 역을 맡았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장종철·강율레씨 장남 우석 (STX증공업)군 흥용식(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유영희씨 장녀 지혜 (용봉중학교 교사)양=29일(일) 낮 12시 웨딩의 전당 금호30층(아시아나홀)

동창·동문회

▲복성중 20회 동창회(회장 박재우) 월례회=24일(화) 오후 7시 북구청 앞 오리평가, 062-262-4488.
▲제8회 전남대 사학과 동문의 밤=28일(토) 오후 5시30분 상무지구 예술의 전당 5층 연회장, 062-362-0011.
▲광주 동신여고 총동창회(회장 박명숙)=28일(토) 오후 5시 무등동 크호텔 3층, 011-602-1573.

향우회

▲제20회 강진군 신전면 향우회(회장 이길채) 창립총회=27일(금) 오후 6시 서구 농성동 메리어트웨딩홀, 016-680-8065.

▲칠칠회회장 김창호)=27일(금) 오후 6시 동구 호남동 미송식당, 062-223-6322.

▲하동정씨 결연공파 결연사 당 준공식 및 추모제=24일(화) 오후 11시 광주시 북구 망월동 산 176번지 경연사 사당, 062-223-1347.
▲경결공 정지 장군 제618주기 추모제 및 사당 준공식 참석=24일(화) 오후 11시 경연사 신축된 사당, 062-365-1187.
▲진양(진주) 하씨 대사간공 종종

친회

▲회장(회장 하권령) 시묘제=25일(수) 오전 10시 정읍시 신월동 선산 010-3607-3369.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225-8700.
▲희귀화폐 전시회=12월 31일까지 광주공항지하철역 역무실 앞. 은 대(세계최초로 화폐를 사용한 시대) 때 등불 빠로 만든 골제폐화 등 33년 간 직접 수집한 화폐 500개 전시. 문의 박용관(011-604-6132).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기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 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강대인 생명쌀’ 세계적 명품 쌀로 만들겠다”

유기농법 계승위해 유학 접고 귀농 보성 강대인씨 장녀 선아씨

"30여 년간 아버지가 이룬 유기농법의 대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귀농하게 됐다"며 당찬 포부를 밝힌 처녀 농사꾼이 있어 농촌에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보성군 별교읍에서 '강대인 생명쌀' 브랜드를 키워온 강대인(58)씨의 장녀 강선아(26)씨는 부친의 가업을 이어 여성농업 경영인으로서 당당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강씨의 부친은 지난 1979년 무농약으로 벼농사를 시작하며 유기농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뒤 국내 최초로 1995년에 벼 부분 유기농 인증서를 받은 후 그동안 각종 농산물에 대한 유기농 인증서만 27개나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초 강씨 부친의 건강이 악화하자 독일로 유학을 가려던 강선아씨는 교육을 전공하려던 계획을 잠시 접고 부친의 일을 돋기 위해 집에 돌아왔다. 1개월만 돋고 부친

이 회복되면 독일로 떠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친의 건강이 쉽게 회복되지 않고 1년이 지나면서 결국 그동안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받아들이며 귀농을 결심하게 됐다.

강씨는 이후 자작반 운영 및 가공식품 사업교육 운영, 유기농쌀, 오색쌀, 숙성발효액기스, 친환경 장류 등의 생산과 판매를 겸하며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특히 가공식품 유기인증을 받아 시설을 규모화시키는데 주력하는 한편 교육관을 운영하며 유기농식품에 대한 생활에서 소비까지 꾸준한 연구에 몰두했다. 한편으로 농민들에게 농촌의 위기와 심각성을 알게하게 하는데 주력하며 귀농생활에 익숙해져 갔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하는 전통문화 체험장 및 교육장, 숙소, 친환경 식당 등을 갖춘 전

남천환경 농업교육원은 그동안 6천여명이 다녀갔다. 농촌의 이해를 돋기 위해 만들어진 농업교육원은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강씨는 "지금은 건강을 되찾은 부친과 함께 농사는 물론 찾아오는 방문객 안내와 전체적인 운영관리를 하며 틈을 내 전남 생명농업대학에서 농업경영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며 "지난 3월에 순천대학교 산지마케팅 1년 과정을 수료하는 등 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각오로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또 2007년 한국벤처농업대학 문현정 보학과와 경영학과를 7기로 졸업했는데 강씨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이 대학의 5기·8기다. 가족이 같은 대학 석수배인 셈.

그는 "벼 농사를 하면서도 특색있게 벼눈을 오색 하트모양으로 만들어 관광객이 찾는 경관농업에도 관심이 많다"며 "'강대인 생명의 쌀'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세계적인 명품 쌀로 우뚝 서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보성=선상근기자 sun@kwangju.co.kr



박준영 전남지사·박주선 국회의원

대한민국무궁화대상 수상



광주일보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 일경언론상

나라 사람, 국화(무궁화) 사람, 겨레 사람 정신을 범국민운동으로 펼쳐온 대한민국무궁화 중앙회(총재 명승희)는 '제18회 대한민국무궁화대상' 수상자로 국회 의원 박주선(광주 동구)의원 등 13명을 선정·발표했다.

중앙회는 ▲정치 부문에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회의회 대표의장, 남경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주선 민주당 국회의원 ▲행정 부문에 허남식 부산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정광수 산림청장, 엄태영 충북 청주시장, 양대웅 구로구청장, 노승철 홍천군수를 각각 선정했다.

또 ▲신사임당 부문에 가정 주부 김영자씨 ▲교육 부문에 이원희 한국교원

박준영 지사

박주선 의원

단체총연합회 회장 ▲영화예술 부문에 최은희 영화감독 ▲사회봉사 부문에 조우장 경상대 교수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후 6시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나라꽃 전국 대축제와 함께 열릴 예정이다. 문의 02-782-875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일보 기획팀 보도물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의 상을 생생하게 취재·보도했다.

특히 필리핀, 베트남, 네팔 등 5개국 현지 취재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송출 과정의 문제점과 인권유린 실태 등을 심층 보도한 점은 의미있는 시도로 꼽힌다.

광주일보는 지난 2007년 연중 기획물인 '온누리안(국제결혼 다문화 가정) 리포트'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을 끌었다.

광주일보 채희종·나명주·윤영기·김대성·최경호·이은미 기자 등 6명이 지

부각시켰다.

대상(상금 1천만원)은 매일신문의 탐사시리즈 '여기는 뚝도(전총진 기자)'가, 춘천MBC의 '안중근, 북위 38도 (황병훈 PD, 문영태 활동)'은 '고마워요'와 함께 장려상(상금 300만원)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진주MBC 특별기획 '지리산(배상호 PD)'은 특별상을 받는다. 시상식은 다음달 16일 서울 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UL인증 시험평가기관 협판식

유은영 한국광기 술원장은 24일 미 국의 대표적 안전 시험 인증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의 한국 내 지점 심사기관 자격을 획득, 'UL 인증 시험평가기관 협판식'을 개최한다.



(약 3천916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올해 만 15살인 조군은 대회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시에 동양인으로서는 이 콩쿠르 최초의 우승자였다. 조군은 일본 작곡가 아끼라 니시무라의 위촉 작품을 가장 잘 연주한 연주자에게 주어지는 특별상(상금 30만엔)을 함께 수상해 2관왕이 됐다.

/연합뉴스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정관옥씨 별세 일구·월심·월님·월숙·월덕·월향씨 부친상=발인 25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석양길씨 별세 김용현씨 모친상=발인 24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박옥희씨 별세 윤개동·영복·용복·영종·영교·윤미·미란씨 모친상=발인 24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3분향소, 062-227-4000.

▲정기석씨 별세 성남·영아·경숙·성용씨 부친상=발인 25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강순심씨 별세 김병준·영춘·영아씨 모친상=발인 25일(수) 학동 6분향소, 062-231-8903.

